

2006년 전미 도서상 National Book Award 수상작 발표

소설부문, 리차드 파워의 《The Echo Maker》

논픽션부문, 티모시 이건의 《The Worst Hard Time》

청소년문학부문, 엠티 앤더슨의 《The Astonishing Life of Octavian Nothing, Traitor to the Nation, Vol. 1》

시부문, 나다니엘 맥키의 《Splay Anthem》

글_ 서주현 북코스모스 저작권팀 영어권 담당

미국 출판업계 최고의 영예이자 도서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전미 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의 올해 수상자가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됐다.

올해로 제 57회를 맞은 '전미 도서상'은 미국인이 쓴 작품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자는 취지로 전미도서재단(National Book Foundation, <http://www.nationalbook.org>)이 후원하고 주최하는 상이다. 소설, 논픽션, 시, 청소년 문학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데 하룻밤 새 한 작가의 경력을 바꾸거나 책의 판매량을 치솟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수상작임을 알리는 금색 스티커가 책 표지에 붙으면, 책의 판매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분야별 수상 도서

리차드 파워(Richard Power)의 《The Echo Maker》(Farrar, Straus & Giroux)가 전미도서상 소설부문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 작품은 네브래스카주에서 일어난 차 사고로 인해 생기는 뇌 질환을 그린 감성적인 소설로 인간 지능의 힘과 한계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논픽션 부문은 뉴욕 타임스의 리포터 티모시 이건(Timothy Egan)의 《The Worst Hard Time》(Houghton Mifflin)이 수상했다. 대공황 시절 미국의 하이 플레인스(High Plains)를 강타한 먼지 폭풍 속에서 생존했던 더스트 바울(Dust Bowl)의 눈을 통해 그 당시의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된다.

청소년 문학 부문에는 엠티 앤더슨(M.T. Anderson)이 쓴 미국 독립전쟁기이다. 보스턴을 배경으로 한 사회 동요와 노예에 관한 대서사 소설 《The Astonishing Life of Octavian Nothing, Traitor to the Nation, Vol. 1》(Candlewick Press)가 선정되었다.

시 부문은 햄본(Hambone) 잡지의 편집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 강사인 나다니엘 맥키(Nathaniel Mackey)의 《Splay Anthem》(New Directions)이 차지했는데, 음악적이며 신비로운 이 시는 일부는 응답 대사, 일부는 리드미컬한 속삭임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을 미지의 시적 공간으로 데려다 준다.

올해 최고의 미국 도서로 선정된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0,000 달러의 상금과 청동 동상이 수여된다.

평생 공로상은 미국 문학계에의 공헌을 인정받아 시인 에드리엔 리치(Adrienne Rich)와 뉴욕 서평(New York Review of Books)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실버스(Robert Silvers) 및 고 바바라 엡스타인(Barbara Epstein)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어떻게 선정되나?

2006 전미도서상의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출간된 도서로 미국인이 쓴 작품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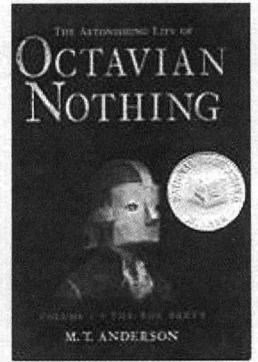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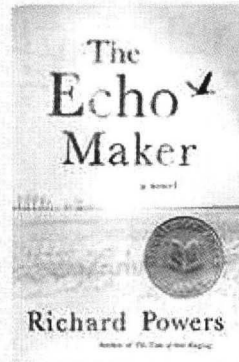
네 개의 패널로 나뉜 심사위원단들에게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선택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주최자인 전미도서재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진행하는데, 수개월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거듭한다.

지난 10월 11일 올해 참가한 총 1,259개의 작품 가운데 각 분야별로 최종 후보작 5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청소년 문학 부문에서는 작년보다 53개가 더 많은 작품이 후보로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리처드 파워(Richard Powers; 1993년 최종 후보), 테일러 브랜치(Taylor Branch; 1989년 최종 후보), 루이스 글뤼크(Louise Gluck; 1992년과 1999년 최종 후보), 엠티 앤더슨(M.T. Anderson; 2002년 최종 후보) 등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적이 있는 작가들 몇몇이 올해 최종후보로 다시 선정되었다.

앞서 소개한 수상작 이외에 최종 후보작 수상자들은 각각 1,000 달러의 상금과 청동 메달을 받는다. 수상작들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설 부문은 마크 다니엘스키(Mark Z. Danielewski)의 《Only Revolutions》(Pantheon), 켄 칼푸스(Ken Kalfus)의 《A Disorder Peculiar to the Country》(Ecco/HarperCollins), 다나 스피오타(Dana Spiotta)의 《Eat the Document》(Scribner · Simon & Schuster), 제스 월터(Jess Walter)의 《The Zero》(Judith Regan Books · HarperCollins)가 수상했다.

논픽션 분야에서는 테일러 브랜치(Taylor Branch)의 《At Canaan's Edge》(Simon & Schuster), 라지브 찬드라스카란(Rajiv Chandrasekaran)의 《Imperial Life in the Emerald City》(Alfred A. Knopf), 피터 헤슬러(Peter Hessler)의 《Oracle Bones》(HarperCollins), 로렌스 라이트(Lawrence Wright)의 《The Looming Tower》(Alfred A. Knopf)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청소년 문학 부문에서는 마틴 리비트(Martine Leavitt)의 《Keturah and Lord Death》(Front Street Books/Boyd's Mills Press), 패트리샤 맥코믹(Patricia McCormick)의 《Sold》(Hyperion Books for Children),



낸시 윌린(Nancy Werlin)의 《The Rules of Survival》(Dial · Penguin), 진 루엔 양(Gene Luen Yang)의 《American Born Chinese》(First Second · Roaring Brook Press · Holtzbrinck)가 그 영광을 안았고, 시 부문에서는 루이스 글뤼크(Louise Gluck)의 《Averno》(Farrar, Straus & Giroux), 에이치엘 히스(H.L. Hix)의 《Chromatic》(Etruscan Press), 벤 레너(Ben Lerner)의 《Angle of Yaw》(Copper Canyon Press), 제임스 맥마이크(James McMichael)의 《Capacity》(Farrar, Straus & Giroux)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장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연설 또한 볼거리였다. 올해 청소년 문학부문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된 《American Born Chinese》의 진 루엔 양(Gene Luen Yang)은 “지금만 화 소설의 전성기라 할 수 있으며, 이제야 순수 문학을 독려하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봐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틴루터킹 목사와 그 시대 배경을 그린 3부작으로 1989년도에 최종 후보에 올랐던 테일러 브랜치(Taylor Branch)는 《At Canaan's Edge》로 올해 다시 논픽션 분야의 최종후보작에 올랐는데,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와 구상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자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bookpist (book + 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 및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중개한 책으로는 《내 생애 남은 아름다운 날들》(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 《돈의 원리》(Smart Question) 《동방을 꿈꾸며》 등이 있다.